

KREI리porter 5월 제주지회 간담회 결과

1. 회의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회원 농가 방문(감귤, 장류)
- 일 시: 2019년 5월 27일(월) 15:00~22:30
- 장 소: 제주시
- 참 석: 총 13명
 - 제주지회 리porter(10명): 강창용, 고권진, 고정식, 고정홍, 김상우, 김수정, 김애자, 부정선, 오인자, 현동석
 - 제주연구원(1명):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주현정 센터장
 - 연구원 관계자(2명): 이정민 팀장,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5:00~16:30	견학	귤이네(현동석 회원 농가)
16:30~18:00	이동	조천읍→한림읍
18:00~19:00	저녁식사	제주물마루된장학교(부정선 회원 농가)
19:00~22:30	간담회	‘농지 임대차 관리’ 등

2. 주요 내용

1) 회원 농가 방문

- 귤이네
 -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현동석 회원 농가 '귤이네'를 들러 감귤 재배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귤이네’는 대한민국 스타팜, 강소농 모델, 제주농업마이스터 대학 교육생농장 등으로 지정되어 체험 및 교육에 특화된 6차산업체입니다.
 - 감귤비빔국수와 통삼겹살구이, 감귤빙수, 감귤쿠키 등 현동석 회원께서 직접 만들어 점심식사를 준비해주셨는데, 비빔국수는 냉동된 감귤을 갈아 비

빔소스에 첨가하고, 말린 감귤은 고품으로 올려 졸깃한 식감을 낸 것이 특징입니다. 직접 만드셨다는 화로에 구워진 통삼겹살이 비빔국수와 매우 잘 어울려져 식당에 파셔도 될 것 같다고 하니 워낙에 인기가 좋아 주변에서 레시피를 배우러 오시기도 한답니다. 이 모든 레시피는 직접 연구 개발하였고, 빙수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쿠키까지 직접 배워와 만드신다니 보통 열정으로 노력하신 게 아닌 듯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귤이네 팜파티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귤이네 농장에서 타이백 농법*으로 재배한 감귤은 당도가 높으면 24브릭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생산품은 유명 백화점에 고가로 납품되고, 예전부터 거래를 이어온 회원만을 대상으로 직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귤따기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맛보는 먹거리 체험을 더해 1년에 몇 백명씩 농장을 다녀가곤 한답니다.

※ ‘타이백 농법’이란 귤나무 아래 타이백(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다층구조의 질기고 부드러운 필름)을 깔아 직접 받는 일조량과 타이백 반사 일조량을 더해 일조량을 높여 색깔이 진하고 당도 높은 감귤을 만드는 농법임.

○ 제주물마루된장학교

- 귤이네 방문을 마치고 한림읍으로 이동해 '제주물마루된장학교'에서 제주지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물마루된장학교는 부정선 회원께서 무농약콩을 이용한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 이곳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장 체험교실로 전통된장, 쌈장, 강된장 등을 직접 만들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제주 특산품으로 유명한 자리돔 회와 구이를 준비해 직접 담그신 장을 곁들여 맛보았는데, 짜지 않고 고소한 맛이 강해 시중에 파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 일반적인 된장은 콩과 소금, 물이 첨가되는 데 물마루 된장은 다시마와 채소를 우린 야채수를 이용해 발효시킨 특허받은 된장입니다. 이 제품으로 장영실 과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 최근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의 일환으로 장류 또한 친환경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유기농 장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물마루 생산물량으로는 부족해 적용기간을 조금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금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환경을 지키고 우리 몸에 더욱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통방식이 더욱 계승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 현동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먹거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먹고 놀다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딸 과일을 맛보고, 조용한 공기를 마시며 쉬다가는 농촌 체험을 만들고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숙박 시설을 지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만들려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변 농로 관련 필지마다 주민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농장에 조그마한 닭장 하나를 만들려 해도 지적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등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은 인정하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애자: 농촌에는 실제 농사짓지 않는 농지주가 많습니다. 임대한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은 쓰지 않으려 합니다. 농지로서 일정 기간을 자경해야 본인이 매매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직불금도 지주가 직접 받기 때문입니다.
- 고정홍: 특히 제주에는 외지인의 투자형 토지가 많습니다. 그 중 농업에 좋은 여건인 농지가 매우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지가 필요한 사람은 매매도 임대도 어렵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해준 지주에게 오히려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어 임대차를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또 농업직불금이 실제 농업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에 직불금

지급 시 실제 자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오인자: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으려면 법적제재가 불가피합니다만 간혹 규제가 과도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시설 설립에 대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한 결과, 특례로 만들어진 것이 6차산업체일 경우, 도로만 확보된다면 3m에 한한 건축시설물은 설립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다른 애로사항도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어야 개선될 것입니다.
- 강창용: 1990년대부터 농지 임대차 문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 임대농이 몇 명인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문제가 아니라 먼저 농촌에 임대농의 실태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경농과 임대농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임대농의 비율과 그들을 직접 조사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확한 정책 수혜대상도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관리 개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농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 파악이 우선 필요합니다.
- 현동석: 농민신문에 실린 대법원 판례 중에 부모가 1만 평을 소유하고, 상속에 한해서는 비농업인인 자식에게 3천 평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땅 있는 부모한테 받을 때는 세금이 없고, 농지를 사거나 임대할 때는 세금부담을 지는 것부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권진: 수입농산물 증가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업은 더욱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더욱 첨단화하고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게 투자해 키운 농업을 자식에게 승계 또는 상속할 경우 세금이 매우 큼니다.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 부정선: 우리 농장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전통장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농림부에서 볼 때는 매우 잘 되고 있는 6차산업이지만, 식약처의 시선에서는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멍니다.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많

아 대기업 수준의 위생관리를 요구합니다. 음식을 만든다는 것, 물론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식약처에서 말하는 HACCP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규모 농가 체험임에도 식품업체에 일률적인 조건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 강창용: 연구원에서 보내오는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문항에 대해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문항 설계 시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현장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해줬으면 합니다. 또 조사를 완료한 이후, 내가 참여한 설문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이 많다 보면 뒤에 가서 앞에서는 어떻게 응답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피드백도 궁금합니다. 당장 반영되지 않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설문결과부터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모저모

